

## 타자들의 장소

### Places of the Other

고일홍\*

1905년에 캐나다의 총리 윌프리드 로리에 경(Sir Wilfrid Laurier)은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혹은 조상의 고향을 망각할 것을 예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들이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되, 미래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조상들의 고향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되, 자식들의 고향도 바라보게 해야 할 것이다(Roddick, 2010, Sarraf, 2015).” 이 내용은 현대 다문화 개념의 효시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 영향을 받은 캐나다의 다문화 정책은 ‘동화(assimilation)’나 ‘인종의 용광로(melting pot)’를 추구하는 유럽·미국의 다문화 정책과는 달리, 이주민의 다양성 존중과 그 다양성 실천에 대한 지원에 방점이 있다(Sarraf, 2015).

이렇듯 다문화는 이주민의 ‘타자’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한 상태에서의 공존을 모색하는 시도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이주노동자, 난민, ‘특별기여자’ 등 다양한 이주민이 거주하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새로운 다문화 구상의 철학적·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결혼이주여성에 치중된 현재 다문화 담론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타자와의 공존’ 문제는 다방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짐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타자와 장소를 공유한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으며, 어떠한 노력

---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mahari95@snu.ac.kr).

을 필요로 하는가? 《공간과 사회》 32권 2호 ‘타자들의 장소’ 특집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기획되었으며, 특집을 구성하는 네 편의 논문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 질문에 접근하고 있다.

고일홍의 연구에서는 ‘역사적 관점’이라는 렌즈를 도입하여 장소 속 타자의 역사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타자와의 공존을 위한 시사점을 얻었다. 우선 제주도 대정을 배경으로는 조선시대 유인교육과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의 교육이주를 비교함으로써 우위의 사회자본을 가진 타자의 배타적이지 않은 실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울산을 배경으로는 타자들의 흔적을 선사시대부터 중첩하여 살펴봄으로써 이 장소에서는 타자와의 공존이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타자와 장소를 이야기 할 때 빠질 수 없는 주제가 ‘도시’이다. 왜냐하면 근대 이후로 도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공간으로 이해되어 왔는데, 여기에서의 시민은 “취향, 가치관, 이념 등을 공유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 오히려 그것들을 공유하지 않는, 즉 서로가 `서로에게 타자인 존재들의 집합”(오창섭, 2013: 465)이기 때문이다. 유성희의 연구는 이러한 타자들이 공존하는 공간인 도시에 대한 비교역사사회학 분야의 그간의 연구를 검토하며, 서구 중심적인 기존 도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유럽의 지방화시키기, 공간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그리고 연결사에 기초한 글로벌한 도시 역동성 제시라는 세 가지 전략을 소개하였다. 이 중 유럽의 지방화시키기는 “이질적인 시공간의 역사적 시계들을 하나의 보편성과 통일성으로 묶기보다는 모자이크처럼 서로 다른 질감을 드러내 보이는, 그래서 흔히 소수자들의 역사적 공간을 펼쳐놓는 작업”(유성희, 2022:58)이기도 한 만큼, 향후 타자/시민들이 도시에서 어떻게 공존을 모색했는지에 대한 비서구적 관점에서의 논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도시에서 공존을 모색해야 하는 타자들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차이에 기반하여 누구를 배제하지도 어떠한 공통점에 기반하여 동질화하지도 않는 차이의 정치에 기반할 때 도시에서의 사회정의가 이

루어”(김지윤, 2022: 90)진다고 보는 김지윤의 연구에서는 차이와 타자성을 무  
화시키지 않은 채 타자들의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인식론적 전환으로 낭시  
의 ‘무위의 공동체’ 개념을 도입하였다. 낭시의 공동체는 도시에서의 파편적  
이고 비위계적인 관계방식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삶은 조건이기도 한 만큼  
(백승한, 2018: 5), 이 연구는 타자의 공존은 물론 이방인 타자에 대한 더 깊이 있  
는 성찰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방인/타자의 관점에서 무엇이 공존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  
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정성조·정용림의 청소년 성소수자의 안전공간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자신을 자유롭게 드러내고 표  
현할 수 있고, 서로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관계”(정성조, 2022: 125)에서 안전공  
간이라는 감각이 만들어진다는 연구의 내용은 ‘인정’과 ‘환대’야말로 공존의  
주요 기둥임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 참고문헌

- 김지윤. 2022. 「타자들의 공동체: 타자들로 구성된 공동체의 가능성」. 《공간과사회》, 32권 2호, 71~102쪽.
- 백승한. 2018. 「장-뤽 낭시의 도시 논의를 통한 단수이자 복수로서의 도시론 탐구」. 《탈경계인문학》, 11권 1호, 5~28쪽.
- 오창섭. 2013. 「공공디자인에서 타자 관계에 있는 ‘시민’에 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26권 1호, 461~481쪽.
- 유성희. 2022. 「마르크스 및 베버주의적 비교역사사회학에서 바라본 도시 개념: 유럽중심주의의 극복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접근」. 《공간과사회》, 32권 2호, 40~70쪽.
- 정성조·정용림. 2022. 「청소년 성소수자와 안전공간: ‘배제된 이들’이 만들어어나가는 대안 공간들」. 《공간과사회》. 32권 2호, 103~141쪽.
- Roddick, P. M., 2010, *Faith, Reason and Common Sense: An Exploration of the Historical and Contemporary Role of Religion in Human Affairs*. Indiana: AuthorHouse.
- Sarraf, M. 2015. "Spatiality of Multiculturalism". Ph.D. Thesis, KTH Royal Institution of Technology,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Environment.